

# 소변색깔 선홍색·진한 갈색 띄면 즉시 병원 진료받아야

## 건강 바로 알기 혈뇨

김준석 광주기독병원  
비뇨의학과 진료과장

정상적인 소변의 색은 투명하거나 맑은 노란색을 보인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선홍색이나 진한 갈색을 띠게 되며, 이를 육안적 혈뇨라 부른다. 육안으로 정상적인 색을 보이더라도 소변검사상에 적혈구가 관찰되면, 이는 현미경 혈뇨 혹은 미세혈뇨라고 부른다. 현미경 혈뇨는 겉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안적 혈뇨나 현미경 혈뇨 모두 비슷한 원인 질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혈뇨라는 증상은 한두 번 있다가 저절로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혈뇨가 보인다면, 꼭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원인을 찾는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요로감염=요로를 구성하고 있는 신체 장기는 콩팥(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요도이다. 이러한 요로계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 혈뇨가 나타날 수 있다.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은 급성 방광염이고, 남성의 흔한 요로감염은 급성 전립선염이다. 방광염의 경우 혈뇨와 함께 배뇨 시 통증, 하복부 불편감 및 통증, 빈

요로감염·결석·신장 혈관 질환·전립선비대증 등 원인 다양한 두 번 있다 저절로 사라져 ... 발생하면 빨리 원인 찾아야

뇨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신우신염과 남성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립선염은 앞서 언급한 혈뇨와 같은 방광염 증상에 발열증상이 보통 동반된다. 원인 균을 밝히기 위한 요배양검사와 초음파 및 CT 등을 시행하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심한 구토가 동반되어 있거나 발열이 심할 경우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

◇요로결석=신장이나 방광에는 결석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장결석이 요관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요관결석이라고 한다. 신장결석은 통증이 없이 혈뇨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요관결석은 요관폐색을 유발해 심한 측복통과 구토증상이 동반된 혈뇨증상을 보이게 된다. 방광결석은 빈뇨나 잔뇨감, 세뇨 등의 하부요로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혈뇨가 주 증상이다. 요로결석이 의심될 경우 초음파나 CT와 같은 영상 검사로 확인하게 되며 결석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고 체외충격파쇄석술, 내시경수술, 복강경수술과 같은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비뇨기계암=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이 대표적인 요로에 생길 수 있는 암이며 모두 혈뇨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암들은 혈뇨 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뇨가 발

생했을 경우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암에 의해 혈뇨가 발생한 경우 계속해서 혈뇨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혈뇨가 있다가도 지혈이 되어서 멈추면 혈뇨증상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혈뇨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검사를 해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혈뇨로 병원을 찾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수개월전에 혈뇨가 있었는데 혈뇨가 멈춰서 비뇨의학과 방문을 미루다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비뇨기계 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초음파, CT, MRI, 방광내시경과 조직검사라는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초기 암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주로 시행하고 말기암은 항암치료 등을 시행한다.

앞서 혈뇨의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혈뇨는 이외에도 신장 혈관 질환, 요로계 기형, 전립선비대증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혈뇨는 정확한 원인을 조기에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변색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비뇨의학과를 바로 찾아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기 진단이 병의 예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김준석 광주기독병원 비뇨의학과 진료과장이 붉은 빛을 띠는 소변 색깔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상담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 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건강백세운동교실 강사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국민의 적극적인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지역시설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건강백세운동교실' 사업에 함께 할 운동강사를 모집한다.

모집중인 운동강사는 경로당 등 시설을 방문해 신체운동 향상을 위한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호남제주지역본부 관할지역인 광주·전남·

전북·제주에서는 596개 시설(3만 9605 회)에서 약 7500명이 건강백세운동교실에 참여했다. 2020년에도 호남제주지역본부에서는 약 600개 시설에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동강사 모집인원은 270명이다. 운동강사 모집 접수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모집인원, 선발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보건대 최도운씨 방사선사 국가시험 전국수석

광주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최도운(3년·사진)씨가 최근 치러진 '제47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면 X선촬영, CT검사, MRI검사, 초음파검사 등과 같은 방사선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검사나 방사선암치료 분야의 방사선 분야 전문 직업인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최도운 씨는 "중요한 사항을 집중 정리해 학습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교과서나 담당교수님을 통해 해결한 뒤, 반복학습을 한 것이 높은 성적을 받은 비결이었다"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항정신병 약물, 치매 환자 뇌 외상 위험 높인다

#### 치매환자 4만여명 대상 조사 기립성저혈압 등 부작용 유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흔히 처방되는 항정신병 약물이 머리 부상과 외상성 뇌 손상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항정신병 약물이란 환각, 망상, 괴이한 행동, 와해된 사고 등 갖가지 정신병적 증상을 진정시키는 약물로 항불안제, 항우울제 같은 정신질환 치료제 외에 각성제, 환각제도 포함된다.

핀란드 동부대학(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약학대학의 베사 타 피아이넨 교수 연구팀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는 4만여 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항정신병 약물이 투여되는 2만1795명과 투여되지 않은 같은 수의 치

매 환자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항정신병 약물 투여 그룹이 투여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머리 부상 발생률이 29%, 외상성 뇌 손상 위험이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만성 질환, 다른 약물 투약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항정신병 약물 사용은 없었다 일어설 때 혈압이 급감하는 기립성 저혈압,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런 부작용은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항정신병 약물은 치매 환자의 신경정신 증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되지만 심한 공격성, 격앙 행동, 정신병적 증상에만 제한적으로 투여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노인병 학회 저널(JAGS)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 식약처, '발암 추정물질' 우려 당뇨병 치료제 수거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의약품 수거·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

한 시험법을 마련해 외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식약처는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험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문제가 된 당뇨병치료제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나 의약품 불순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의 시험법 마련에 따라 메트포르민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자체 또는 외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

약처 역시 자체 시험 검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원료에 대한 계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의약품부터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원제의약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허가된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은 총 632개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만 자민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억~4억 원의 저금리 대출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화 대출(신협특수대출)
- 50세 이상 초·중·고령층을 위한 생활지원금
- 저임금·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